

# “GNI 대비 무상원조 0.15% OECD 꼴찌... ODA 늘려야”

〈국민 총생산〉

〈공적개발원조〉

## 전혜숙 의원 지구촌복지포럼 강연

지난해 ODA 22억 달러 지원  
OECD 회원국 평균 0.31% 절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이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조찬강연자로 나섰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국덕을 쌓으면 국운이 좋아진다”며 “앞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꾸준히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은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13일 열린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조찬강연을 하고 있다.

기구) DAC(개발원조위원회) 총 29개 회원국 중 ODA 지원 규모로 15위를 차지했다. ODA 지원 규모는 지난해 22억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국민 총생

산(GNI) 대비 ODA 비율 0.15%로 전체 회원국 중 25위다. 전체 회원국 평균 0.31%의 절반에 그친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

당시, 2015년 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25%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직접 무상원조에 참여했던 경험도 밝혔다. 그는 탄자니아 무힘빌 리의과대학병원에 의약품 기증하고,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한국의 보건분야 협력 방안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몽골 철도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기증했고, 몽골 정부와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몽골 보건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양해각서(MOU)를 체결, 총 25억원의 무상원조를 통해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데 협의했다.

한국은 무상원조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무상원조는 베트남에 1억3686만 달러를 지원한 등, 극동 아시아에 2억6620만 달러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다. OECD DAC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무상원조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2억1490만 달러를 투입해 전체 29%로 가장 높다. 특히 한국은 ‘교통 및 물류’ 분야 원조에 8억 3138만 달러를 투입했다. DAC는 ‘인도적지원’ 분야에 132억 62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무상원조 비율이 높은 것도 긍정적이지만 무상원조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탄자니아와 몽골 등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결과 무상원조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무엇보다 무상원조를 열렬히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JW중외제약은 지난달 26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19 CP&ABMS 강화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준수의 각오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JW중외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인증

ISO37001 사후관리심사 적합판정

JW중외제약이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JW중외제약은 SBC인증원이 진행한 국제 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ISO37001은 반부패경영시스템 분야의 국제표준규격으로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관리되며, 3년 주기로 인증 갱신을 위해 초기 심사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가 진행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심사에서 중부적합·경부적합 사항 없이 권고사항만 확인돼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후관리심사에서 부적합이 1건 이상이면 인증이 보류되며 중부적합이 다수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JW중

외제약은 전 임직원의 자율적 준법준수와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ISO37001을 도입한 JW중외제약은 기존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ABMS(전자적 부패방지 경영시스템)를 통합한 CP&ABMS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 조직 팀장 이상 관리자를 CP&ABMS 책임자로 발령하고 내부 심사원을 육성했으며 무기명 대내외 고발시스템, 고위험부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6월을 ‘JW 윤리의 달’로 정하고 ▲전 임직원 윤리경영 서약서 서명 ▲CP 온라인 교육 시행 ▲CP 문화 확산 등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인사평가에 CP&ABMS 이행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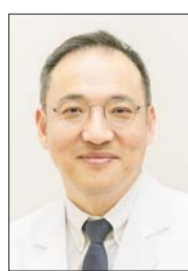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 25일 개원 기념 연수강좌

이대서울병원 정형외과가 25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척추관절 ▲어깨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과 발목 관절 ▲보험 정책 ▲정형외과 개원의가 알아야 할 타과 질환 및 치료 등 7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의 교수진은 물론 국내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좌장 및 연자를 맡아 총 21개의 연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 신상진 정형외과 과장



(사진)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대학병원과 1차 진료 병원간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에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연수강좌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부터 최신 지견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전 등록은 21일 까지 진행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폐섬유증 신약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대웅제약 경구용 섬유증 치료제  
폐섬유증 원인 콜라겐 과생성 억제

대웅제약이 개발중인 폐섬유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13일 세계 최초 혁신신약(First-in-Class)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제 DWN12088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ODD)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ODD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신청권, 시판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웅제약

‘DWN12088’은 PRS 단백질의 활성만을 선택적으로 감소시켜 폐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가진 경구용 섬유증 치료제다. 전임상을 통해 폐섬유증 동물모델에서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현재 호주 인간연구윤리위원회(HREC)에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발성폐섬유증은 폐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폐 기능을 상실해가는 간질성

폐질환 중 하나로, 치료가 어렵고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 미만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DWN 12088은 PRS라는 신규 타겟에 대해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로 개발중인 섬유증 치료제로, 이번 FDA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인해 폐섬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더욱 빠르게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은 폐섬유증 외에도 피부, 신장, 간, 심장섬유증 등 다양한 섬유질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DWN12088은 지난 2월 국내에서도 섬유증 질환에 대한 약물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신약개발 부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 단국대병원 우승훈 교수 ‘흉터없는 암 수술법’ 확립

‘경구강 갑상선암 수술’ 학계 주목

“흉터없는 암 수술이 가능할까?” 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 우승훈 교수(사진)팀이 흉터없는 갑상선암 수술인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확립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기존 갑상선암 수술은 수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했으나 이는 갑상선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로 인해 혈전 가능성을 높여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우 교수가 확립한 수술법은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수술기구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해 아랫입술의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을 없앴다.

우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최근 SCI



논문인 Surgical Endoscopy에 발표했다. 우 교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9 유라시아 학회 초청 강연을 통해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소개했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해부학과 양현무 교수팀과 협력하여 인체 카데바 시험을 통해 안전한 경구강 갑상선 접근구역을 확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적용해 무흉터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의 안전성을 증명했다.

이는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기존의 수술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로, 2014년 우 교수팀이 발표한 경구강 갑상선 수술법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한용수 기자 hys@

## 아이스크림 포화지방 국내보다 수입제품 ↑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 13%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이 국내 제품보다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과 빙과에 대한 영양성분을 조사·공개하면서 위해가능 영양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비만관리 등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아이스크림(752개)과 빙과(184개) 중 고·저 식품은 모두 126개(아이스크림 94개, 빙과 32개)로 전체 조사대상 제품의 13.5%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제품의 포화지방 함량이 국내제품보다 평균 0.9g 높았다. /이세경 기자